



# 메디컬 호랑이, 진료와 경영 두 마리 토끼 잡다! 고대안암병원,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지난 11월 25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의료부문 '국가품질상(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고려대 안암병원이 수상한 국가품질상은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관에게만 수여되는 것으로, 공모된 대한민국 유수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전략기획, 고객과 시장중시, 정보와 분석, 인적자원중시, 프로세스 관리, 경영성과 등 종합적인 측면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엄격한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 ❖ 고강도 혁신경영으로 국제병원 도약 성큼

고려대 안암병원은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의 비전과 세계화의 기치(旗幟)를 내걸고 과감한 체질개선 및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영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최근 진료와 경영부문에서 이룬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병원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안암병원의 변화와 혁신에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사회공헌 활동 강화

안암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술을 펼치고 있다. 신한은행 공동사회공헌 활동,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라파엘클리닉 의료봉사 협약 등 국내 우수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재난 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재난 구호 활동을 펼쳤으며, 최근에는 고려대 사회봉사단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돕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 ❖ 전문 경영시스템으로 효율성 극대화

안암병원은 지난해부터 경영관리 중장기 로드맵 4단계를 계획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경영관리에 대한 시스템화에 착수했다. 개별 업무를 모두 표준화하는 한편, 객관적인 업무실적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는 신인사평가제도를 구축했다. 또한, 처방/시행기준에 의한 과/의사 및 주요 의료장비별 손익산출로 실질기여도를 파악하는 원가관리시스템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진 경영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JCI 인증획득)

안암병원은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진료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최첨단 의료기기를 도입했다. 또한, 콜센터 운영, 예약시스템 등 의료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올해 7월 국제의료안전평가인 JCI 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미래 의료산업화, 개방화에 따라 해외환자유치사업을 병원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전담의사와 전문코디네이터, 각 진료부서의 전문의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진료단과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인 환자진료시설의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다양한 의료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여행대행사 및 보험사, 치료전과정이 연계가능한 의료기관, 연구소 등 포괄적 국제의료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수행 등 과감한 정책집행으로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4월 국가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신약 개발 및 국제 임상시험 허브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 ❖ 인간 존중 경영으로 新조직문화 창출

안암병원은 내부 구성원을 최우선시하는 인적자원관리로 3년간 1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기업만 인증이 가능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노동부 에이스 클럽 인증을 올해 2월에 획득했다. 또한, 간호사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충원, 멘토링제도 활성화, 프리셉터 교육,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등의 성과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노동부장관 표창을 올해 4월 수상했다. 내부 교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사이버 연수원을 운영하여 직무교육은 물론 외국어, 재테크,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종간의 화합을 위하여 전직원 한마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시 제안제도, 내부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등 상하좌우 유연한 의사결정구조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자체내부 직원 만족도 평가에서 지난해 상반기 보다 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원의 역량과 성과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대규모 인력채용을 지속한 것 등이 교직원 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 진료, 경영 부문 성과 극대화

이러한 혁신경영은 성과로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안암병원의 최근 3년간 매출규모에서 매년 12.5%에 이르는 신장율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일일 외래환자 4,000여명, 재원일수 단축, 신규 환자도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 등 눈부신 경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안암병원은 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역량을 집중해 세계적인 특성화 센터를 육성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임상역량을 더욱 강화해 갈 방침이다.

스페셜 리포트 1

# 뇌졸중 치료 가장 잘 하는 병원, 고대안암병원

## 심평원 전국 의료기관 대상평가, "올 A+"로 최고 등급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뇌졸중 치료를 가장 잘 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8년 10월부터 두 달간 전국 종합병원 이상 194개(종합전문병원 43개, 종합병원 1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 결과를 평가하고 병원별 종합 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평가 내용은 뇌졸중 진료 전문인력 현황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뇌졸중 재발 감소를 위한 2차 예방 부분 등 총 10개 지표로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 안암병원은 전 부문에서 A+ 평가를 받아 국내 우수 의료기관들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유성욱 교수는 "이번 평가는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고 발병률 또한 급증하고 있는 뇌졸중 치료에 대한 종합평가" 라고 설명하고, 뇌졸중의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예방 및 뇌졸중 발생시 응급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유성욱 교수는 "갑자기 한 쪽 팔다리의 힘이 빠



지는 경우, 의식이 나빠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발음이 어눌한 경우, 갑작스런 시야 장애, 갑자기 보행이 이상해지거나 어지러운 경우, 갑자기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등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임의로 약물을 복용하지 말고, 빨리 급성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리포트 2

# 한국의 파스퇴르, 이호왕 박사 高大에 우뚝



유행성출혈열 병원체인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예방백신과 진단법을 개발해 세계 의학발전과 인류건강복지에 기여한 한탄 이호왕(李鎬王, 80) 고려대 명예교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흉상이 고대 교정에 세워졌다. 10월 29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4강의실과 의대 앞 광장에서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흉상제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이호왕 명예교수와 함께 권이혁 前 보건사회부 장관, 김상하 삼양사 회장, 김정배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기수 세계 의학발전과 인류건강복지에 기여한 한탄 이호왕(李鎬王, 80) 고려대 명예교수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흉상이 고대 교정에 세워졌다. 10월 29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제4강의실과 의대 앞 광장에서 이호왕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흉상제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의 대표적 의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이호왕 명예교수는 1969년 한탄강 주변에서 서식하는 등줄쥐의 폐조직에서 특이한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1976년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 병원체와 면역체를 발견해 '한탄바이러스'로 명명했으며, 60년대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유행한 괴질의 원인을 규명하는 등 잇따른 연구업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스페셜 리포트 3

# 심혈관질환 연구열정 의대생도 교수님만큼 뜨거워요!

## 고대의대 제 2회 심혈관 학생 심포지움 개최 의대생 및 교수진 등 나서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에 대한 지견 나눠



특정 질환에 관한 심포지움은 교수진이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나 이번엔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심혈관질환에 대한 연구열정을 불태웠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고대의대 심혈관 학생심포지움을 들여다 본다. 고대의대(학장 나홍식)가 11월 14일 안암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 의사, 의대생, 간호사, 의과학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심혈관 학생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고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의 인사말과 나홍식 학장 및 세종병원 노영무 병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대사증후군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기전', '대사증후군의 치료적 접근', '대사증후군의 중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제가 발표됐다. 연자로는 이유경(본과3), 최종석(본과1), 최재형(본과3), 박윤지(본과3), 허지민(본과3)등 의대생 15명이 연제를 발표했으며, 고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안철민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한기훈 교수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심포지움을 기획한 임도선 교수는 "10여년 전만해도 널리 인식되지 않았던 대사증후군은 최근 당뇨, 고혈압 및 기타 심혈관질환과의 연관성의 고리를 통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예방적 및 치료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연구의욕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홍식 학장은 "오늘 발표자로 나선 학생들은 학문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으로 수개월간 이 심포지움을 준비한 만큼 얻는 것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은 학생이기에 의학도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만큼 거는 기대도 매우 크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기초적인 기전으로부터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병태생리와 진단 및 치료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두 번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작년과 달리 세종병원 노영무 병원장과 서울아산병원 한기훈 교수, 세브란스병원 고영국 교수를 고정패널로 초청해 한층 수준높은 심포지움이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30대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 \_ 암에 안전지대란 없다!

얼마 전 영화배우 장진영 씨가 36세의 나이에 위암으로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은 많은 20-30대 젊은이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더 이상 암은 노년층에만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다. 실제, 서구화된 식생활 및 복잡한 사회환경으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로 20-30대 암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비무환!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

건강검진은 장년층이나 노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20,30대의 젊은층에게도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암은 나이가 들어 발병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 젊은 연령층에도 종종 발병되기 때문이다.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는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인은 라면, 햄버거, 피자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즐긴다. 이러한 가공식품은 칼로리와 염분의 함유량이 많다. 또, 한식보다 육류가 주를 이루는 서구식, 짧아지고 불규칙한 식사시간, 늘어나는 외식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식사량과 음식 종류를 조절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가 암 발병 연령을 낮춘다. 적어지는 활동량은 또 어떤가. 높은 자가용 보급률, 집 앞까지 들어와 있는 대중교통으로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가까운 층을 이동하더라도 계단보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가전제품 또한 최소한의 동선을 추구하는 디자인이 호응을 얻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등 모든 가전기기를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등 좀처럼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6년 사이에 적절하게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20대의 경우 77.8%에서 50.9%로, 30대의 경우 72.0%에서 39.6%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운동과 연계된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도 모두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경제난이 가중되고 사회 내에서의 경쟁

이 치열해지면서 높아지는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한다. 회식에 따른 음주율도 20, 30대 모두 2~3%가량 상승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변화는 젊은 연령층에서 건강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최근 10년동안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 여성들은 양 극단으로 나누어진다. 저체중이지만 체지방이 높은 마른 비만이거나 아예 비만한 경우가 늘어나는 것. 이는 코골이, 근골격계 통증, 지방간, 대사증후군과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최근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견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비단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질환과 긴장성 두통이나 위장장애와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건강검진은 각종 성인병이나 성별, 연령별로 흔하게 발견되는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그 병변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흡연, 음주, 식사습관, 운동량 등 생활습관과 함께 스트레스 정도와 스트레스 관련 증상을 파악하는 것까지 확대되었다. 단순하게 질환과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유해한 개인별 생활 습관을 파악하고 정기적 관리를 통해 건강 위험 요인을 교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젊다고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 



도움말 | 종합건강진단센터 소장 진윤태 교수  
문의 | 종합건강검진센터 02)920-5491

## 이부서이사람

# ★ 마술로 질병을 치료할 수 만 있다면...★

기적같은 마술로 환자의 쾌유를 기원하는 고려대의료원 홍보대사 이은결



안암병원에서 펼쳐진 이은결 홍보대사의 마술무대 장면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사랑, 용기를 선물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뜻 깊은 일이 있을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 씨가 지난 2006년 6월 고려대의료원 홍보대사에 위촉되면서 밝힌 소감이다.

이은결씨는 안암·구로·안산병원 등에서 환아와 고객 및 교직원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왔다. 특히, 군 복무시절인 올해 3월과 지난해 4월에도 해군홍보단과 함께 안암병원을 찾았다. 이날 내원객과 입원환우 및 보호자, 교직원 등을 비롯한 300여명이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매직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은결 마술사는

약한 시간동안 끈, 지팡이, 불, 공중부양 등의 다양한 마술을 선보였으며,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해 큰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관객들은 이은결 마술사의 매직쇼를 보기 위해 공연 30분 전부터 공연장 내는 장사진을 이뤘으며, 매직쇼가 끝난 후에도 열렬한 환호를 보내 앵콜 공연을 보기도 했다.

마술사 이은결은 늘 특유의 멋진 미소와 화려한 동작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관객들과 동전마술을 펼치기도 하고, 객석의 어린이와 풍선마술, 환자와 지팡이 마술 등을 선보여 마술을 보이면서도 관객들과 소통하기를 즐겨워 한다. 올해 3월에 안암병원을 방문한 이은결

홍보대사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고려대의료원의 홍보대사입니다”라며 고대병원과의 각별한 관계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은결 홍보대사는 특히, 소아환아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소아환아 희망선물’ 마술공연을 실시하기도 해 어린이에 대한 애착을 보여왔다. 이은결 마술사는 “매번 공연을 통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런 공연을 마련해 주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 

## 서울성곽 걸으며 ‘깨끗한 혈관만들기 캠페인’ 펼쳐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은 11월 22일(일) 오전 9시 30분 ‘깨끗한 혈관만들기 캠페인’을 열고 북악산 서울성곽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원 교직원 및 원내기자단, 의과학전공자, 일반인, 외국인신청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이번 걷기대회는 혜화문을 출발해 와룡공원-숙정문-곡장-북악산

정상-창의문 코스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완주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의료원이 쿠키미디어어와 함께 “깨끗한 혈관만들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혈관질환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 예방과 치료방법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개최됐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고혈압·동맥경화·허혈성심장질환·부정맥 등의 소책자를 등산객에게 배부하며 심장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한편, 조태형 대외협력실장은 “불과 십여 년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우리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갈 수 있는 돌연사의 주범이다. 혈관질환의 경우 자각증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자각증상이 없던 상태에서 찾아오는 만큼 평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 부정맥도 ‘한류’, 명품의술로 靑 의료진 매료



부정맥 분야의 아태지역 최고 학회인 아·태 부정맥학회에서 한국의 부정맥 전문의들이 다시 한 번 명품의술을 선보였다. 지난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부정맥학회(APHRS: Asia Pacific Heart Rhythm Society 2009)’에 약 3천여 명의 세계 각국 부정맥 전문의 및 학자들이 참석해 부정맥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 및 최신지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심장학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며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부정맥 분야에 대한 전 학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부정맥분야의 세계적인 명인인 고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김영훈 교수는 아·태 부정맥학회 학술위원장으로 학술프로그램의 선정과 진행을 진두지휘하는 핵심인물로 차기 학회의 한국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왕성한 활약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고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최종일 교수가 ‘지속성 심방세동 시술시 발생하는 심방빈맥과 복잡분할전기도와와의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로 우수논문상을, 안암병원 내과 노승영 전공의가 ‘폐정맥의 해부학적 변형을 동반한 만성 폐질환 환자에서의 심방세동 전극도자 절제술’에 관한 논문으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학회에 참여한 한 해외의료진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기회가 되면 직접 고대 부정맥센터를 방문해 술기를 전수 받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인공장기센터 국제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 한국인공장기센터(소장 선정)가 강원대학교 인공심장연구소(소장 심은보)와 공동으로 오는 11월 27일 강원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인공장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 유일의 인공장기 전문 국제심포지엄으로 올해로 7회째인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강원대학교 인공심장연구소 개소를 기념하며 ‘인공심장연구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특히, 국제 인공장기 학계의 권위자인 일본 국립순환기병센터의 요시유키 타에나가 박사를 비롯, 중국 북경 메이탄중합병원 부원장 취 쉹 박사, 대

만 국립대만대학교 흉부외과 왕 웨이셴 교수 등 기계식 순환보조장치 임상 분야의 권위자들이 대거 초청강연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공심장 분야의 차세대 선두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하트 사의 임상연구팀 책임연구자인 울리히 오펜만 박사도 ‘소아형 인공심장의 임상적용’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실시했다. 국내에서도 인공심장 및 생체재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 분야의 최신 지견을 소개하며 인공심장 관련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학술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인접기술의 융합과 접목을 고찰하는 의미에서 유헬스 및 원격의료교육 분야 임상전문가인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의 켈달 호 교수의 특강도 함께 마련됐다.

## 임도선 교수, ‘가슴이 아파요’ 출판기념 소아심장병 어린이 후원금 전달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가 지난 7월 발간한 흉통의학만화 ‘가슴이 아파요’ (출판사: 북 폴리오, 저자 임도선, 스토리 이한울, 그림 박지훈) 출판기념에 안암병원 내에서 판매되는 수익금 406만원을 소아심장병 어린이의 치료비로 지원했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송주환(남, 4개월) 아기는 2009년 8

월 18일 출생했으나 출생당시 심근염 진단을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지속해 오다 9월 3일 동맥관개존폐쇄술을 받았다. 특히 주환이는 장기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치료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환아 가정에 전달되어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가지게 됐다. 어머니 서명옥씨는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도선 교수님을 비롯한 출판사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적 구입의 수익금으로 후원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정말 큰 힘이 됐다. 주환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더 정성을 다해 돌보겠다”고 말했다.

### 정형외과 이순혁 교수,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 취임



정형외과 이순혁 교수가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1일 열린 학회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신입 회장으로 선출된 이순혁 교수는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이순혁 교수는 “학회가 활발히 운영되어 국내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학회 회원들이 지난 7~8년간 연구한 전문적 지식과 조직은행 운영 경험이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는 조직이식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내에서 이식되고 있는 조직의 90%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을 나누는 조직 기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조직기증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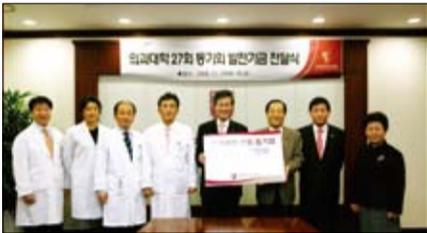
### 외과 김종석 교수, 차기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외과 김종석교수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대한외과학회 제 61차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2년이다. 대한외과학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제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세계적인 글로벌 학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종석 교수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김종석 교수는 52년생으로 76년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미국 UCLA, 일본 Cancer Institute, 독일 Technischen Munchen 의

과대학 등에서 연수했다. 이후 안산병원 외과 과장,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안암병원 외과 과장 등을 역임하고, 미국임상암학회 회원, 의용생체공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의료심사위원장, 수련위원장, 감사 등 주요 임원직을 맡아왔다.

### 고대의대 27회 동기회 아름다운 기부,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원장, 유형 용산외과의원장, 손숙자 을지병원 기획조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27회 동기회는 기부식에서 “졸업한지 어느덧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동기들과 졸업 40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다” 라고 기부취지를 전하고, “최근 모교의 발전상을 보고 마음 든든하고 뿌듯하다. 모교가 앞으로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7회 동기회가 11월 24일 오후 의무부총장 접견실에서 의학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정영조 일산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유광사 유광사 여성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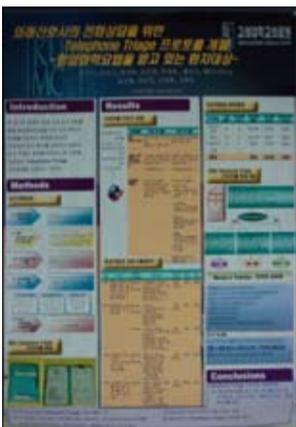
### 간호부, 제 8차 중환자전문간호과정 성료



번 ‘중환자 간호교육과정’에서는 호흡기계, 소화기계, 심혈관계, 뇌혈관계, 신경계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게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간호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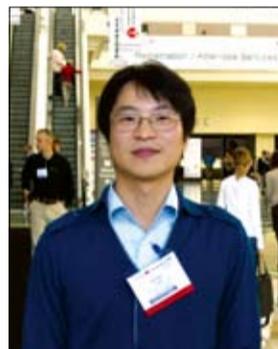
안암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은숙)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제 8차 중환자전문간호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11월 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

### 외래 간호사, 논문 포스터 큰 호응 받아



간호부 외래논문팀(정진의 외 10인)이 11월 24일 ‘제 17회 서울시 병원간호사회 임상간호 연구논문 발표회’에 참가했다. 외래논문팀은 “외래간호사의 암환자 전화상담 프로토콜 개발”이란 주제의 논문 포스터(사진)를 발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외래논문팀은 이 논문을 통해 외래간호사가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전화상담을 받았을 경우, 바로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증상의 긴박성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등 일관성있고 시기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지침이 되는 전화상담 프로토콜을 개발해 제안했다.

### 흉통코디네이터 박기태 간호사, 미심장학회 참가



심혈관센터 흉통코디네이터 박기태 간호사가 11월 16일부터 11월18일까지 열린 미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2009 미국심장학회에 참가했다. 심장 분야 전문의, 간호사, 기초 의학 연구자 등 전세계 수 천명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세계 최고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이번 학회에서 박기태 간호사는 순환기질환 간호의 최신경향을 살피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07년부터 미국내 상용화되고 있는 최신 간호학 통계분석인 MEMs cab, CST 등의 활용법에 대해 습득하는 등 활발한 학회활동을 펼쳤다.

박기태 간호사는 “타병원과 차별화된 전문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간호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 안과 김효명 교수, ‘세공학술상’ 금상 수상



안과 김효명 교수팀이 대한안과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7일 일산 고양 컨텍스에서 열린 제 102회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세공학술상’ 금상을 수상했다. 김효명 교수는 임재원 전공의와 팀을 이뤄 ‘Lift and Crush Technique with Bevel Down Torsional’ 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세공학술상’ 금상을 수상했다. ‘세공학술상’은 안과 질환 중 백내장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상이다.

### 간호부, 뷰티클래스로 더 아름답게



안암병원 간호부는 11월 19일 오후 12시에 8층 소회의실에서 간호차장들을 대상으로 ‘뷰티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뷰티교실은 간호부 조운수 간호팀장이 회장을 맡고 있고 안암병원 간호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성북구 간호사회가 준비한 것으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강사를 초빙해 업무에 지친 중간관리자들의 사기를 재충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뷰티교실의 한 참석자는 “단아한 메이크업으로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가꿀 수 있을 것 같다” 며 소감을 밝혔다.

# 친절응대 전화예절부터... 올바른 전화응대 표현법



최근 의료 장비 및 기자재 청구를 위해 여러 업체에 전화를 건적이 있었다. 6-7곳에 전화했지만 겨우 1곳에서만 제대로 된 전화매너를 느낄 수 있었다. 원내에서 친절리더로 수년간 지내다보니 친절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쉬운일이 되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전화응대 교육부 터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CS강사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고객응대 전화예절이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병원 에서도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는 것들이다. 많은 분들이 매너있는 전화응대를 수행하고 있지만 고객 들은 직원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친절한 전화응대법에 관 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 올바른 전화응대 표현은?

- **잘 들리지 않을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안 들리나? / 왜이래?" (×)  
→ "고객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먼저 끊겠습니다.. 다시 걸어 주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끊겠습니다."
- **부재중, 외근 중**  
"자리에 안 계신데요~" / "지금 없는데요" (×)  
→ "잠시 자리 비우셨습니다." / "메모 남겨드릴까요?"
- **전화 연결 할 때**  
"어디신데요?" / "잠시만요~" (×)  
→ "실례이지만, 어디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 **내 담당이 아닐 때**  
"전 잘 모르거든요~" (×)  
→ "죄송합니다 담당하시는 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 **잘못 걸린 전화일 때**  
"아닌데요~" / "전화 잘못 거셨어요~" (×)  
→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 **화가 난 고객일 때**  
"... 그게 아니구요~ / 휴..." (×)  
→ 일단 사과한다. 듣는다. 또 듣는다. 해결책을 말한다.
- **병원 위치 안내할 때**  
→ 상대방의 현재 위치 파악  
→ 교통편 확인 (버스 / 지하철 / 자가운전)  
→ 알기 쉽게 설명 (상대방 기준으로)
- **부가적인 질문을 할 때**  
"그것도 모르셨어요?" (×)  
→ "그 부분에 대해 듣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인 요구를 할 때**  
"그 이전에 안 됩니다!" (×)  
→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 | 친절리더 오명옥 수간호사

## 영화소개



# 아바타

감독 제임스 카메론  
주연 샘 워딩튼, 조 샐다나, 시고니 위버  
수입 / 배급 이십세기폭스코리아  
개봉 2009년 12월 17일 (목)

## 인류의 마지막 희망, 행성 판도라 이 곳을 정복하기 위한 아바타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가까운 미래, 지구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나먼 행성 판도라에서 대체 자원을 채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판도라의 독성을 지닌 대기로 인해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인류는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Návi)'의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 원격 조종이 가능한 새로운 생명체 '아바타'를 탄생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편, 허반신이 마비된 전직 해병대원 제이크 설리(샘 워딩튼)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제안 받아 판도라로 향한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 제이크는 자원 채굴을 막으려는 '나비(Návi)'의 무리에 침투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는다. 임무수행 중 '나비(Návi)'의 여전사 '네이티리(조 샐다나)'를 만난 제이크는 그녀와 함께 다채로운 모험을 경험하면서 '네이티리'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간다. 하지만 머지 않아 전 우주의 운명을 결정 짓는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면서 제이크는 최후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

## 여행안내



# 북악스카이웨이

북악산 능선따라 펼쳐진 관광도로, 서울시 경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인기 만점

1968년 9월에 개통된 북악스카이웨이는 서울의 주산인 북악산의 능선을 따라 동북으로 뻗은 관광도로로 길이가 약 19km에 이른다. 이 길을 따라가면 한쪽은 북한산 비봉과 문수봉이 이어지는 산세가 장관을 이루고, 또 한쪽은 남산을 바라보고 앉은 서울시의 경관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전 구간에 걸쳐 잘 가꾸어진 가로수와 관상수들이 철따라 꽃을 피워내며 남산의 순환 도로와 함께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전경을 만끽할 수 있다. 적설기를 제외하고는 도로사정도 나무랄 데 없다. 굽어진 도로마다 반사경과 180여개의 수은등이 설치되어 안

전한 드라이브를 뒷받침해, 과속이나 차량에 이상이 없는 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길의 중간쯤 능선길 정상에 잠시 길을 멈추고 서울의 전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13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알맞은 장소들도 대부분 이곳에 있고, 차와 간편한 식사메뉴까지 갖춰있다. 이미 신혼부부의 시내 드라이브코스도 이름나 있고, 먼 곳에서 서울을 찾은 친척과 친지들,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서울을 한눈에 보여주는 관광코스도 한몫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

### 이용가능시설

팔각정휴게소, 팔각정 이탈리아레스토랑, 팔각정 한식당, 커피숍, 스낵코너, 산책로 (왕복 10km)

### 길안내

- \* 팔각정 - 효자동사랑방 - 경복궁 - 인사동 - 탑골공원 - 세운상가 - 종묘 - 창경궁
- \* 팔각정 - 사직단 - 경희궁 - 덕수궁 - 인왕산
- \* 팔각정 - 석파정 - 대원군별장 - 세검정 - 북한산
- \* 팔각정 - 문묘대정전과 명륜당 - 대학로 - 동대문 - 동묘
- \* 팔각정 - 환기미술관 - 가나아트센터 - 토탈미술관 등 화방

## 연말 술자리, 말로리웨이즈 증후군 주의 구토로 인한 식도, 위 경계파열,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평소 술에는 남다른 자신이 있던 직장인 김모씨(35세)는 연말 계속되는 화식에 폭탄주를 마시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는데 내용물에 피가 섞여 나왔다. 평소 건강하던 그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생각하고 다음날 또 간부직원 만년회에 참석했다. 그는 돌아오는 폭탄주를 마시고 결국 그 자리에서 토혈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고서야 안정을 취했다.

### 지나친 연말 술자리 자제해야

1년 중 가장 술자리가 많은 12월, 김씨처럼 과음 뒤 구토를 하면서 식도와 위 경계부위가 파열돼 동맥출혈이 발생하는 말로리웨이즈 증후군(Mallory-Weiss Syndrom)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질환이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다. 고농도의 알코올을 마시면 위 상부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분문(噴門)과 식도 인접 부위의 점막이 강한 알코올에 의해 화학적 자극을 받아 가벼운 손상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알코올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점막 하근층이 파열을 일으키고, 점막하 동맥도 파열을 일으켜 결국 대출혈과 함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 구토 심해지고 출혈 증세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식도와 위의 연결부위는 분문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좁아져서 음식물이 통과할 때 저항을 받는 곳이다. 계속되는 구토로 상처가 더욱 커지고 뇌의 구토중추가 구토반응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식도와 횡격막의 기능도 상실해 분문부에서 식도로 역류가 일어나면 손상부위의 출혈이 더 심해진다. 특히 과도한 음주로 식도나 위의 감각이 없어지고, 계속 알코올이 주입되면 증상이 악화되고, 환자는 위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심한 빈사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센터 금보라 교수는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은 알코올이 체내 장기 조직을

파괴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질환으로 구토에 이은 토혈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필히 내시경 검사로 상처 정도를 진단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출혈이 심하거나 식도 천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도 이상의 과도한 술은 피하고 되도록 천천히...

말로리웨이즈 증후군은 독한 술을 즐기는 사람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폭음시 더욱 발생하기 쉽다.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로 알코올성 간경화증에서 오는 식도 정맥류, 위궤양이나 위암에 의한 증상과 구별하며 진단이 내려지면 서둘러서 지혈해야 한다. 보통은 내시경 관찰하에 무수(無水)알코올을 출혈 병소에 바르면 알코올의 탈수 작용으로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어 지혈이 가능하다.

말로리웨이즈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코올 도수 20%가 넘는 소주, 위스키 등은 위장에 부담을 많이 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음주 전 반드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공복에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여러잔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는 자칫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위천공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 술은 되도록 천천히 마시는 게 좋다. 천천히 마실수록 뇌세포로 유입되는 알코올의 양이 줄어들고 간에서 해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술마실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회에 소주 1병 이상 폭음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술에 약한 사람이라면 1회 음주량을 더 줄여야 하는데, 술자리 간격은 2-3일 정도 띄워서 간에서 술을 대사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술마신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알코올을 분해하고 대사해 배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소화기센터 금보라 교수  
외래 | 02)920-6551

## 건강한법상

# 저단백 식사란 무엇인가



주 목적은 영양분의 대사 후 생성되는 대사산물과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이나 적혈구같이 필요한 것은 내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선택적 여과기능이라고 부른다. 만성콩팥병에서는 이러한 선택적 여과기능이 떨어져서 노폐물은 내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노폐물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데, 저단백 식사는 바로 이 노폐물을 줄이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의 하나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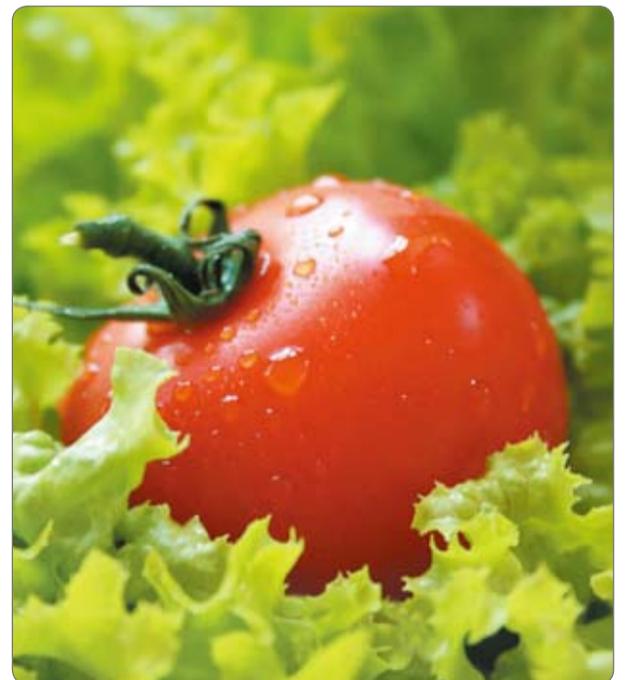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에서 사용된 후 대사산물이나 찌꺼기(노폐물)의 형태로 배설된다. 그런데 이 노폐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다. 영양소중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은 대사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어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데 비해 단백질은 사용된 후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 낸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이러한 노폐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여 나타나는 중독 증세가 요독증이다.

저단백식사는 체중 1kg당 0.6g이하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36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기에 들어있는 수분과 다른 성분을 감안한다면 실제 생선이나 고기의 무게로는 80g의 무게에 해당된다.

저단백식사에서 단백질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질이다. 아미노산중 일부는 콩과 같은 식물성단백에도 들어 있지만

필수아미노산은 우유나 계란에 풍부하다. 만약 만성콩팥병환자에게 저단백식사를 권한다면 하루에 생선 한 토막과 우유한잔, 계란 1개를 권할 수 있다. 서양 사람에 비해 육류섭취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의 식습관에서 이는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닌 셈이다.

도움말 | 신장내과 김형규 교수  
외래 | 02)920-5418



만성콩팥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식사관리이다. 그것을 콩팥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아주 적절한 질문이다.

콩팥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여과기능이다. 여과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콩팥의 기능단위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과의

